2011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 주 최 : 사단법인 녹색연합

∥ 후 원 : 에너지관리공단

2011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그린캠퍼스를 찾아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학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우리나라 50대 에너지다소비기관 중 대학이 10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의 에너지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기후변화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많은 대학들이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란 대학 구성원들이 캠퍼스 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해외 대학들은 이미 시민사회와 학생이 협력해

그린캠퍼스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점수를 매겨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마다 평가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미래의 학생들에게 그 대학을 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환경적 책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학생, 관련 기관, 지역사회가 대학을 선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대학이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가 분야

- 지속가능관리, 녹색경영, 교육, 온실가스 관리, 사회적 책임, 기타

대 상

- 전국 대학 중 평가지표 회수대학

우수사례 선정 대학

- 경인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가나다순)

우수사례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미래 세대의 환경나침반, 환경교사를 양성한다









경인교대 여름환경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는 2005년부터 'Green & Clean Campus' 활동으로 매월 1일을 녹색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0년에는 그린캠퍼스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G]3 (Green Infra, Green Education, Green Action)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전 직원이 개인컵을 사용하고 시험지는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20여년 역사를 가진 환경학술동아리 '미르뫼'는 2010년 정기 세미나를 통해 대학 내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세미나와 모의 UN 환경회의, 캠페인, 환경캠프 등을 진행해 미래세대의 환경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적용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캠퍼스를 실천하고 있다.

우수사례 2

대구대학교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 25%를 줄이다



대구대 공중화장실 태양열 시설



대구대 온실가스관리분야계획







대구대학교는 전 건물에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절전형 멀티탭 교체, 적정온도 준수, 수도 누수 배관 공사는 기본. 대학본부가 지불해오던 전력, 수도 등의 비용을 각 단대별로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단대별 공과금 독립체산제를 도입해 에너지 사용절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에너지 사용량 25%를 줄여 총 2억 8천 750만원을 절약했다.

실적이 우수한 16개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2011년 2월 탄소제로화 소위원회, 문천지 및 자전거 소위원회, 녹색교육 소위원회를 둔 녹색대학 위원회를 구성해 그린캠퍼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학생대표, 총대의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그린캠퍼스 정책에 학생들의 참여를 북돋우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협력해 저탄소 지역사회와 그린캠퍼스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수사례 3

상지대학교

미래 환경을 바꾸는 대학









환경 친화적인 세계 속의 지역대학 (Glocalization Environment Network Sangji 21, GENS 21)이라는 비전을 갖고 그린캠퍼스를 실천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2008년부터 교양과목군만 15개의 에코커리큘럼 개설, 인문사회과학대학은 10개 과목, 경상대학은 11개 과목, 생명자원과학대학은 13개 과목 등 전공 교육과정에도 총 65개에 이르는 환경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1교 1촌 운동의 일환으로 6개 단과대학과 호저면 마을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대학생협에서 마을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2005년부터 급식식단의 55%를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대학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36% 정도 를 충당하고 있으며, 연간 3억 4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수사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한 친환경대학









서울대학교는 2008년, 「지속가능한 친환경서울대학교 (Sustainable SNU)」를 선언하고 대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92개 실천과제를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 린캠퍼스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부 직할 연구기관인 AIEES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캠퍼스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대학 전 부문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고, 2010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Green - in - Us)를 구성해 그린캠페인, 친환경 캠퍼스 활동, 홍보 및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서울대학교 - 환경부 - 민간기업 간 '그린리더십' 협약을 통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도입하여운영하고 있다.

AIEES 홈페이지(http://aiees.snu.ac.kr)와 '2010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학교 백 서' 등을 통해 활동 목표와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수사례

신라대학교

그린리더 씨앗을 심는 대학









경인교대 여름환경학교

신라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에코교육헌장을 선언하고, 그린캠퍼스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2010년 8월 일본의 서일본공업대학, 중국의 하해대학과 협의회를 구성해환경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코디네이터 인증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SD 코디네이터 인증과정은 환경학개론, 환경과 법, 지구환경의 현재와 미래 등 기초지식강좌 영역, 지역사회발전연습, 기업 및 환경법 연습, 놀이를 통한 환경 등 응용강좌 영역, NGO와 함께 하는 환경운동, 친환경 기업 분석 등 발전강좌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6학점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수여한다. 캠퍼스 재학생의 30%가 ESD 코디네이터 인증과정을 수강하고, 수강생의 5%가 중복으로 수강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우수사례 6

한국해양대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그린캠퍼스









2009년 구성된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는 교수, 교직원, 총학생회, 영도구청 등 대학구 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03년부터 태양열 온수시스템, 지열 온수시스템, 풍력 및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해수온도차 냉난방시설 등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해 연평균 137TOE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있다.

캠퍼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K-12 프로그램(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 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환경 그린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색운동,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사회를 만들어가는 민간환경단체입니다. 전국 1만 5천명 회원들과 함께 생태계보전활동, 아생동물보호활동, 군기지 환경감시활동, 녹색도시와 생태마을 만들기, 미래세대 환경운동, 기후에너지 대안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 136-821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 전화 02.747.8500 / 팩스 02.766.4180 / www.greenkorea.org

발간번호: 01 - 11 - 11 - 01